

초심 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겪는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김 영 주 장 재 현 김 대 원 이 지 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조기종결을 경험한 초심 상담수련생과 내담자들이 왜 상담이 조기에 종결되었는가에 대해 지각하는 차별적 특징을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수련생 7명과 내담자 9명을 대상으로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면접을 실시한 후 핵심문장을 추출하여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상담수련생이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는 '상담자-내담자 요인'과 '독립성-상호관계성'의 두 개 차원으로 나누어 졌으며, '상담 역량부족', '내담자의 저항', '상담자·내담자 간 부조화', '상담자의 방어적 반응' 등 총 네 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는 '상담자-내담자 요인'과 '상담과정-상담효과성 기대'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개의 차원 상에 위치한 네 개의 군집은 '초기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 '상담자의 공감부족',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자기공개에 대한 불편감' 등 이었다. 본 연구는 조기종결의 이유에 대해 수련생과 내담자 각자가 지각하는 내적 인식구조를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으며 상담자 발달 단계에 따른 초심 상담수련생의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수련생, 초심 상담자, 조기종결, 상담에 대한 기대, 개념도

[†] 교신저자 : 이지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Tel : 02-2123-4877, E-mail : zed27@naver.com

최근 7-8년 사이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자기계발 서적 판매량이 네 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육과 상담·심리치료를 통해 자기이해를 증진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이후남, 2011).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상담자가 전문 직종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수가 240% 증가하고 최근 상담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원대학교들이 신설되어 수련생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련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상담자의 훈련 경험과 자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상담자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엄격한 질적 관리와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최윤미, 2003).

Stoltenberg(1981)는 상담자의 자율성과 의존성을 기준으로 상담자의 네 가지 발달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상담수련생은 상담기술과 이론을 익히고 완전한 자기성찰과 타인이해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가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담자 자신의 결점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초심 상담자들은 높은 열의와 기대만큼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김미지, 2005). 초심 상담자의 이러한 어려움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경빈, 조성호, 2009). 그 이유는 자신만의 상담

특성이 정립되기 이전인 초심단계에서 자신의 실수와 두려움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이것이 향후 상담전문가로서의 방향성과 발달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경인, 김창대, 2007; 차영은, 2011).

그동안 서구문화권에서는 초심 상담자들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Skovholt와 Ronnestad(2003)가 높은 수행불안,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걱정, 내담자와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관계설정에 대한 어려움, 불완전한 상담자 자아, 상담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 불충분한 사례개념화, 긍정적 지지를 해주는 멘토의 부재 등 7가지로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초심 상담자의 어려움을 연구하였는데(김길문, 정남운, 2004; 김미지, 2005;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정경빈, 조성호, 2009), 우리나라 초심 상담자들은 회기초반에 어려움이 크며 내담자가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조기종결(premature termination; psychotherapy drop out)을 원할 때, 더욱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길문, 정남운, 2004). 이러한 결과는 김지연 등(200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내담자가 상담 중에 주호소 문제가 재발한다고 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종결을 서두르는 등의 태도를 보일 때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기종결 비율이 30~60%에 이른다고 보고한다(Bakeland & Lundwall, 1975; Garfield, 1990). 조기종결을 경험하는 상담자는 상담과정 자체를 부정적·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Epperson, 1981), 조기종결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귀인하며 소진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Masi, Miller, & Olson, 2003). 특히 초심 상담자들은 아쉬움, 무력감, 회의감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압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손유미, 정남운, 2005), 이들에게 조기종결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어려운 경험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기종결에 대한 초심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차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복합적인 종결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조기종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초심 상담자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조기종결 연구들은 주로 예측 변인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중 Bakeland와 Lundwall(1975)는 조기종결과 관련한 변인을 크게 내담자 및 상담자 개인 변인과 상담자-내담자 관계 변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내담자 요인으로 주목받는 변인은 상담에 대한 동기와 기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이다. 끝까지 상담을 지속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동기가 약하며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았는데, 이러한 기대와 동기수준은 상담성과와도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신은향, 1998; 안이환, 2002; 이명아, 1996; Longo, Lent, & Brown, 1992). 또한 상담 지속자보다 조기종결자가 유의미하게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나타내 상담의 지속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Piper, Ogrodniczuk, Joyce, McCallum, Rosie, & O'Kelly, 1999). 조기종결과 관련한 상담자 요인으로는 성별과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경험 수준, 교육수준, 상담이론 등이 논의되고 있

으나 일관된 결과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Epperson, Bushway와 Warman(1983)은 남자 상담자가 더 낮은 조기종결율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상담자의 성(性)에 따른 조기종결율의 차이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안이환, 2002; Rodolfa, Rapaport, & Lee, 1983). 또한 상담자의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종결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Hunsley, Aubry, Verstervelt와 Vito(1999)에 따르면 경험이 많다고 하여 상담성과가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자에게 더 많은 조기종결이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상담이론에 따른 조기종결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상담이론에서 상담성과는 비슷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문수정, 김계현, 2000) 정신역동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자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조기종결 시 상담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안이환, 2002).

Wierzbicki와 Pekarik(1993)은 조기종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내담자의 요인은 고정변인이기 때문에 치료적 함의가 낮으므로,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더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Tryon과 Kane(1993)은 상담자가 지각한 동맹의 수준이 낮을수록 조기종결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최근까지 동맹이 상담성과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안정적인 변인임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Martin, Garske, & Davis, 2000). 이러한 동맹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일치할수록 긍정적인데, 특히 초기동맹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유의미한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Dearing, Barrick, Dermen, & Walitzer, 2005). 상담지속을 예언하는 작업동맹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내담

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을 연구해 왔으나, 이후 제 3평정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수준이 치료자가 평정한 동맹수준보다 상담성과를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상담 장면에서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나타나는 지각차이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Bachelor, 1991; Elliott & James, 1989; Heppener, Rosenberg, & Hedgespeth, 1992; Hovarth & Symonds, 1991). 작업동맹에 이러한 지각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Mallinckrodt와 Nelson(1991)는 상담자 경험수준을 지목하고 있다. 상담자가 숙련될수록 작업동맹의 목표차원과 유대차원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유대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상담자의 경험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동맹에 관한 지각차이가 적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 초기,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작업동맹을 더 높게 평가하는 지각차이를 보였고(김남희, 1994), 자기비하 편향을 보이는 초심 상담자일수록 내담자보다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김원영, 1999). 최근 조기종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담자-내담자의 관계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함은 물론(Barrett, Chua, Crits-Christoph, Gibbons, & Thompson, 2008; Sharf, Primavera, & Diener, 2010), 이들이 실제 상담 장면의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담과정 연구의 시사점에 관한 논란, 연구대상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조기종결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은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김현미, 권현용, 2009; 심혜숙, 안이환, 1999; 안이환, 심혜숙, 2002)인데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손유미와 정남운(2005)은 이러한 단순 양적 집단비교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지각차이를 탐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도입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초심 상담자·내담자 쌍 연구를 통해 이들이 상담시작, 진행, 조기종결, 종결 후 영역에서 각기 다른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담과정상의 지각차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기종결 경험 자체에 대한 각자의 인식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CQR 방법의 특성상 면담 내용을 별도로 구성된 평정팀이 범주화하고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조기종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언제, 어떻게 종결된 상담을 조기종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이론적 함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조기종결을 정의한 연구들에서는 상담 회기 수와는 무관하게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내담자가 오지 않는 경우를 조기종결이라 하였다(손유미, 정남운, 2005; McNeill, May, & Lee, 1987; Pekarik, 1983; Saltzman, 1984). 그러나 상담수련을 갓 시작한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기종결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불분명한 사례개념화, 높은 수행불안 등을 경험하는 초심 상담자들의 부적절한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기종결과 관련

한 Strak(1992)과 심혜숙, 안이환(1999)의 연구를 토대로 ‘내담자가 상담시간에 자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담을 중단하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1~2회기 정도에서 일방적으로 상담을 중단한 경우’를 조기종결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초심 상담자 연구에서는 대부분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초심 상담자에 포함시키고 있어(김길문, 정남운, 2004; 김지연 등, 2009; 손유미, 정남운, 2005), 실제 초보상담자들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기가 어려웠다. 국내연구는 초심 상담자의 기준이 각 연구자마다 다르거나 혹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아(차영은, 2011)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수련에 갓 입문한 상담수련생들이 조기종결 경험에 더욱 취약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 상담자의 범위를 상담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 2년 미만의 실습생으로 한정하고, 용어는 상담수련생으로 정하였다. 이는 상담심리사 2급 정도의 자격취득 기준을 따른 것이며,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관련분야 석사입학 후 최소 1년 이상,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을 2급 자격취득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7).

따라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담수련생들에게 있어, 특히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조기종결 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는 것은 초심 상담수련생으로서의 독특한 경험과 이들의 내면세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초심 상담수련생과의 상담을 조기에 종결한 내담자들의 경험과

초심 상담수련생의 조기종결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조기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겪는 실제경험의 내면적 의미와 맥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국 상담에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쪽은 상담자이므로 상담자가 예상치 못한 종결위기를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에 갓 입문한 수련생일수록 동맹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면, 이후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왜 상담이 조기종결 되었는지’에 대한 수련생과 내담자의 인식구조를 시각적으로 도출·비교함으로써, 초심 상담수련생이 겪는 조기종결 장면의 복잡한 역동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수련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 method)은 상담과정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방법으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주관적 경험과 관점을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의미체계를 활용하여 범주를 구성해냄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시적이고 명료한 인식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또한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이 혼합된 방법론으로 일대일 면접으로 상담수련생과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을 어떻게 경험을 확인한 뒤,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이라는 양적 통계방법으로 인식의 차원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왜

조기종결이 되었는가'에 대한 초심 상담수련생 및 내담자의 내적 경험과 이들의 인식차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생들을 교육·훈련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상담에서 조기종결을 겪은 상담수련생 7명(여자 5명, 남자 2명)과 수련생과 상담도중 조기종결을 결정한 내담자 9명(여자 8명, 남자 1명)이며, 이중 각 4명이 서로 쌍을 이루는 수련생과 내담자들이었다. 단, 1차 인터뷰를 마친 내담자 9명 중 2명이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 최종적으로 7명의 내담자가 핵심문장 분류 및 중요도 평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상담수련생의 실습 경력은 2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상담관련 자격증은 보유

하지 않았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한 사설 상담센터의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시점까지 만난 내담자 수는 평균 3.8명($SD=1.46$), 실습한 총 회기 수는 평균 19.6회기였으며($SD=9.74$), 연령은 27세에서 44세 사이로 평균 34.6세($SD=6.42$)였다. 내담자의 경우 최근 5개월 이내 조기종결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은 18세에서 51세 사이로 평균 31.5세($SD=9.00$)였다. 내담자 9명 중 4명은 과거에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본 사설상담센터는 10여 명의 상담전문가 지도하에 한 해 약 150여 명 가량의 초심 상담자를 교육·훈련시키는 수련기관으로, 수련생들의 교육배경이 서울 및 경기도 권 소재의 대학으로 다양하다. 또한 기관이 직접 내담자를 공개모집하여 사례를 배분하고 있어 기관과 연계된 특정 센터에서 내담자를 배정하기도 하는 타 수련기관에 비해 내담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다양한 특성이 있다. 연구자들이 속한 학교 내 심리학과 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위험요소, 정보보호 등에 관해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았으며, 기관의 협조를

표 1. 연구참여자(상담수련생)

상담 수련생	성별	나이	최종학력	실습경력		슈퍼비전 횟수	상담관련 자격증	종결 회기	종결후 경과시간
				기간	사례수				
1	남	20대	석사과정재학	4개월	5사례	2회	없음	5회기	8주
2	남	30대	석사과정재학	2개월	3사례	1회	없음	2회기	4주
3	여	40대	석사과정졸업	12개월	5사례	8회	없음	3회기	2주
4	여	30대	석사과정재학	2개월	1사례	2회	없음	6회기	2주
5	여	40대	석사과정재학	6개월	4사례	3회	없음	2회기	8주
6	여	20대	석사과정재학	8개월	5사례	5회	없음	6회기	4주
7	여	30대	석사과정재학	4개월	4사례	4회	없음	4회기	8주
<i>M</i>		34.6세($SD=6.42$)		5.4개월	3.8사례	3.6회		4회기	5.1주

표 2. 연구참여자(내담자)

내담자	성별	나이	직업	과거상담 이력	종결회기	종결후 경과시간	주호소문제
1	여	30대	강사	없음	5회기	8주	대인관계
2	여	50대	주부	있음(1회)	3회기	8주	개인문제
3	여	30대	학생	있음(1회)	6회기	8주	우울
4	여	30대	사무직	없음	2회기	13주	진로문제
5	여	20대	사무직	있음(3회)	4회기	20주	진로 및 우울
6	남	10대	학생	없음	5회기	3주	가족 및 대인관계
7	여	20대	연구원	없음	4회기	4주	상담경험
8	여	20대	사무직	없음	5회기	8주	대인관계
9	여	20대	영업직	있음(1회)	6회기	4주	우울
<i>M</i>		31.5세(<i>SD</i> =9.00)		0.6회	4.4회기	8.3주	

얻어 최근 6개월 이내 조기종결 경험이 있는 수련생과 내담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 전원에게 연구 제반에 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실행방법에 근거해 조기종결을 경험한 상담수련생과 내담자의 내적 개념구조를 확인하였다. 먼저 초점질문은, 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조기종결의 원인을 바라보는 지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왜 상담이 조기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가?”(조기종결의 원인)로 선정하였다.

초점질문을 확정한 후 본 연구자들이 직접 수련생과 내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약 30분 가량 면접을 하였다. 사전 동의를 구해 녹음한 면접 내용으로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의 지

도·감수하에 석사과정 연구자 4명이 연구 목적에 맞는 진술문들을 분석·추출하여 핵심문장들을 정리하였다. 평정자 4명 중 2명은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80-100개 정도의 핵심문장 수가 적당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Trochim, 1989) 본 연구에서는 80-90여개의 핵심문장들을 정리한 뒤,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로 합치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아이디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진술의 의도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참여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수정 없이 반영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전례를 참고하여 핵심 문장 추출 시에 평정자 간의 일치도 계산은 생략하였다.

핵심문장 정리가 끝난 뒤 연구자들은 연구참가자들에게 추출된 핵심문장들을 분류하고 평정하게 하였다. 수련생과 내담자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나온 핵심문장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였다. 이때 하나의 범주는 최소 두 개 이상의 핵심문장으로 구성되어

야 하며, 전체 범주 역시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Paulson & Worth, 2002;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이와 함께 각 핵심문장의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위해 상담수련생과 내담자들이 같은 범주로 묶은 문장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은 문장들은 1로 코딩하여 각 두 그룹이 총 7개의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이 7개의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유사성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내담자와 상담수련생 각각의 GSM을 바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념도의 군집분석에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Ward방법을 사용하였으며(Kane & Trochim, 2007), 군집화 일정표를 보고 정지규칙(stopping rule)을 활용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정지규칙은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값이 커지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로 전 단계에서 군집화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계수값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은 바로 그 단계의 군집화에 의해 케이스의 이질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핵심문장의 리커트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후 각 군집별 단위에 새로운 의미의 개념을 부여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수련생과 내담자의 완성된 개념도를 각 군집별로 해석함으로써 이들이 조기종결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결과

초심 상담수련생들의 조기종결 경험이유에 관한 핵심문장은 최종 86개로 정리되었고, 상담수련생들은 이 핵심문장들을 최소 3개에서 최대 17개($M = 6.3$, $SD = 4.8$)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내담자들의 조기종결 이유에 관한 핵심문장은 최종 68개로 정리되었고, 내담자들은 이 핵심문장들을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M = 5.3$, $SD = 1.5$)로 군집화 하였다. 상담수련생들의 2차원 해법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225이었고, 내담자들의 스트레스 값은 .253이었다. 이는 개념도를 위한 MDS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에서 .365에 충족한다(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상담수련생들이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에 관한 개념도

상담수련생들이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에 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과 총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개념도(그림 1)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원 1은 상호관계성 및 독립성으로, 차원 2는 내담자 요인 및 상담자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각 군집은 ‘상담역량 부족’, ‘내담자의 저항’, ‘상담자 내담자 간 부조화’, ‘상담자의 방어적 반응’이었다.

군집 1(상담역량 부족)은 수련생으로서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관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상담경험이 부족한 수련생들이 내담자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적절한 상담전략을 구사하지 못해 겪는 불안감, 자책감, 부적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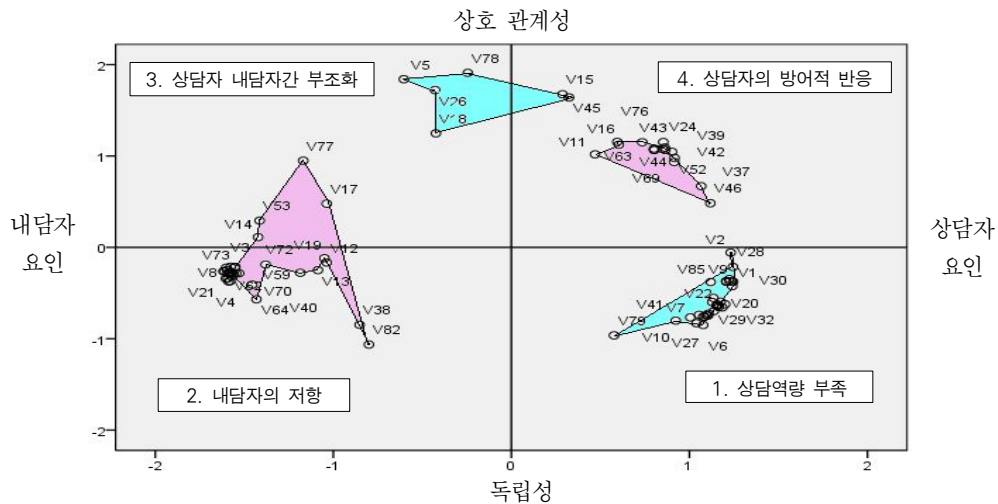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수련생이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 개념도

의식 등을 반영하고 있다. 군집 2(내담자의 저항)는 내담자가 자기문제를 개방하는 것을 불편해 하거나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된다. 이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이 동기가 낮고 상담자의 개입에 비수용적이며 일방적으로 종결을 통보 하는 등의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초심 상담수련생들이 겪는 무력감을 반영한다. 군집 1과 2는 내담자와 상담자 각각이 경험하는 내적 어려움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어, 독립성 차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군집 1보다 군집 2가 개념도 상단인 상호관계성 차원에 더욱 가깝다. 이는 군집 1이 상담을 원활하게 이어가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초심 상담자의 비전문성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군집 2의 경우 내담자 관련한 저항뿐 아니라 상담자의 반응에 따라 나타나는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가능성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호관계성 축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 3(상담자 내담자 간 부조화)는 처음부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군집이다. 수련생이 말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담사례였거나 상담자의 성향과 내담자가 기대했던 상담자상이 잘 맞지 않았다는 등 좀 더 중립적인 측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지각한다. 때문에 군집 3은 상담의 상호관계성 축에 배치됨과 동시에 개념도의 좌우에 위치한 내담자 요인과 상담자 요인 차원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4(상담자의 방어적 반응)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종결을 제안했을 때 당황하여 상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경험(상담자 요인, 상호관계성 차원)을 담고 있다. 특히 초심 상담수련생들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언급한 불만을 상담자인 자신에 대한 질책과 거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내담자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표 3. 상담수련생이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역량 부족(31문장)		
문항	문장	중요도
20	내가 공감반응을 할 타이밍에 탐색을 하거나,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야기에 공감을 못했다.	4.29
71	내담자가 이야기 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알아채고 필요한 반응을 하지 못했다.	4.29
10	내담자가 2-3주에 한 번씩 오면서 어떤 것이 적절한 개입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우왕좌왕 했다.	4.14
1	치료적인 반응을 못할까봐 내가 너무 불안해서 오히려 반응이 경직되게 나왔다.	3.86
32	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어설픈 직면과 해석을 하여 내담자가 마음을 닫고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3.86
36	인내심을 갖고 내담자를 더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모습이 부족했다.	3.86
51	내담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조급하게 접근했다.	3.86
74	내가 내담자의 과거에 대해 너무 접근해서 내담자가 두려워했을 것 같다.	3.86
86	내담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 내가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했다.	3.86
22	내가 내담자를 다루는 기술과 공감해주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다.	3.71
34	상담한지 얼마 안 되서 상담을 잘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3.71
61	상담은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한 채 내담자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3.71
85	정확한 행동지침을 바라는 내담자에게 상담은 좀 더 개인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인식시키지 못했다.	3.71
41	나만의 추측과 해석으로 내담자가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를 계속 꺼내며 상처를 주었던 것 같다.	3.57
50	내가 초보상담자여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3.57
30	상담구조화를 하지 못했다.	3.43
48	내담자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강력한 것을 더 줘야한다고 생각해서 에피소드들에 파고들었다.	3.43
60	나는 내담자가 감정을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다.	3.43
79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걸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내담자가 알아챘던 것 같다.	3.43
2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공감하기 힘들었다.	3.29
27	내담자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아닌 내가 원했던 내용을 다뤘다.	3.29
67	슈퍼비전을 받은 뒤, 내 욕심에 내담자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몇몇 에피소드들에 너무 깊게 들어갔다.	3.29
6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느낀 나의 부족한 점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었다.	3.14
7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사례에 시간과 공을 쏟아 집중하지 못했다.	3.14
29	내담자와 내가 나이가 비슷하여 안쓰러운 마음이 더욱 커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법을 밀어붙였다.	3.14
54	내가 어색한 걸 내담자가 알아서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3.14

75	내담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좀 더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의 조언을 하려 했다.	3.14
84	내가 내담자에게 ‘어땠어요? 어땠어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서 내담자가 물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3.14
28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계속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례 개념화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2.86
9	내가 상담초보자라는 게 티 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2.43
65	평가에 민감한 내담자에게 상담에서 과제를 내주어 상담에 오지 못하게 부담을 준 것 같다.	2.43
군집 2: 내담자의 저항(33문장)		
59	내담자가 마음을 열지 않고 길도는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4.14
13	내담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좋게 웃으면서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상담에서도 반복된 것 같다.	4.00
82	힘들고 불행했던 과거를 계속 탐색해서 내담자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했다.	3.86
80	내가 내담자의 과거문제를 주호소와 연결지어 깊게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것 같다.	3.71
81	내담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많이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을 힘들어했다.	3.71
70	상담이 어떤 건지 한 번 체험하고 싶다고 온 내담자여서, 일이 생기면 상담을 꼭 와야겠다는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다.	3.57
38	내담자는 내가 너무 가르치려 든다고 느꼈던 것 같다.	3.43
47	내담자의 성격구조가 상담을 오래하기 힘든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3.43
53	내담자가 상담대학원에 가고 싶어했고,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참여했으나 다시 나를 필드에서 만날 것을 우려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3.43
72	내담자는 내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싫어했을 것 같다.	3.43
4	내담자가 여러 번 나오지 않다가 나타나서 오늘까지만 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3.29
23	내담자가 연락 없이 상담에 빠져서 계속 바람을 맞았다.	3.29
40	상담에 오면 쿨하지 않은 자기모습도 봐야 하는데 내담자는 그것이 싫어서 오는 것 자체를 불편해 했던 것 같다.	3.29
12	상담 도중에 내담자의 주호소가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웠다.	3.14
14	나는 전혀 내담자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내담자는 그걸 왜곡해서 공격한다고 지각하였다.	3.14
31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피하며 합리화 시키고 싶어했다.	3.14
35	내담자의 회사 일이 바빠져서 상담에 오기 힘들었다.	3.14
64	만난 지 몇 번 안 된 상태에서, 내담자는 내가 너무 깊게 관여한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다.	3.14
55	내담자의 친정 어머니가 아파서 상담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	3.00
73	상담자가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존적인 내담자였다.	3.00
3	내담자가 뭔가를 감추려 하는 것 같았고, ‘나 별로 문제없는 사람인데.’라고 말했다.	2.86
17	내담자가 나를 무시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2.86
62	내담자가 상담 시간을 많이 어기고 지각도 잦았다.	2.86

77	내담자가 남자(여자)였는데, 내가 여자(남자) 상담자라서 불편해했었던 것 같다.	2.86
56	내담자가 과거에 언어 상담, 미술치료 등을 계속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2.71
66	내담자가 나를 굉장히 어렵게 느꼈다.	2.71
25	내담자가 애를 놓고 쉬다가 갑자기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2.57
33	내담자가 자신이 공인의 부인이라고 하며, 사생활 밝히기를 거부했다.	2.57
8	내담자는 한번 수틀린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담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다.	2.43
49	내담자가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나에게로 화제를 돌려 나에게 대한 질문을 하였다.	2.43
19	내담자 생각에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느껴 ‘니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2.29
83	내담자는 MMPI 불안 점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다.	2.29
21	내담자가 상담료를 내지 않아 상담소에서 이를 독촉하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	2.14
군집 3: 상담자 내담자 간 부조화 (6문장)		
18	초보상담자인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찬 내담자였다.	3.71
78	나와 내담자 간에 조합이 맞지 않았다. 상담자의 무조건적 공감을 바라는 내담자가 그렇지 않은 상담자를 만난다면 힘들 것이다.	3.57
5	나와 내담자의 스케줄이 맞지 않았다.	3.29
15	내담자는 반응을 잘해주고 아기 다루듯 해주는 상담을 원했지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3.00
26	슈퍼바이저가 전문가가 해도 힘든 내담자라며 전문가에게 넘기라고 했다.	2.86
45	내담자는 역동적인 사람이고, 나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정말 안 맞았다.	2.57
군집 4: 상담자의 방어적 반응 (16문장)		
42	내담자의 방어적인 태도에 나 또한 주춤하고 멍칫하면서 당황했다.	4.29
76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3.86
46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담자가 불편한 감정을 딱 한번 드러냈었는데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3.71
58	너무 어려운 사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견디고 받아주긴 했지만 당하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어려웠다.	3.57
68	내담자가 종결하자고 했을 때, ‘너는 상담을 잘 못하고 불편하다.’ 라는 말로 들려서 나도 방어적으로 나갔다.	3.57
69	내담자가 2회기 때 상담 받는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해서 굉장히 놀랐었고 당혹스러웠다.	3.57
39	내담자가 상담 받는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 내가 더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29
43	내담자가 자기를 잘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불만을 계속 이야기해서,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	3.14
57	내담자가 상담초반에 상담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니깐 이 내담자는 내가 많은 노력을 해도 좋아지고, 나를 좋아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3.14
37	내담자가 과거에 조기종결 한 경험이 있었고, 나와도 조기종결 될까봐 불안했다.	3.00

44	내담자가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상담이 너무 멍멍한 것 같다.’고 말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화가 났다.	3.00
11	종결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담자에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 너 필요 없다. 안와도 된다.’ 는 식으로 느꼈을 것 같다.	2.71
24	‘상담하면 뭐 달라져요?’라고 화를 내며 말을 함부로 하니까, ‘니가 뭘데? 난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해?’하는 생각에 나도 화가 났다.	2.71
63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해서 다른 상담자를 원하냐고 물으니 오히려 화를 냈다.	2.71
52	내담자가 상담 받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을 때, 안아주고 ‘니 마음이 그랬지’ 라고 하지 못했다.	2.57
16	나의 반응에 화를 내며, ‘당신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라며 울면서 뛰쳐나가 데스크에 종결을 신청했다.	2.14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에 관한 개념도

내담자들의 조기종결 이유에 관한 개념도(그림 2) 또한 2개의 차원과 총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차원 1은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 및 상담 효과성에 대한 기대, 차원 2는 상담자 요인 및 내담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군집은 ‘초기 호소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 ‘상담자의 공감부족’,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자기 공개에 대한 불편감’

전문성에 대한 불신’, ‘자기공개에 대한 불편감’이었다. 내담자의 개념도는 차원 1에서 초심 상담수련생의 개념도와 차이를 보인다. 군집별 위치를 살펴보면 ‘초기 호소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와 ‘상담자의 공감부족’이 차원 1의 상단에 분포한다. 이 두 가지 군집은 상담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용 받고 심리적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담자의 예후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상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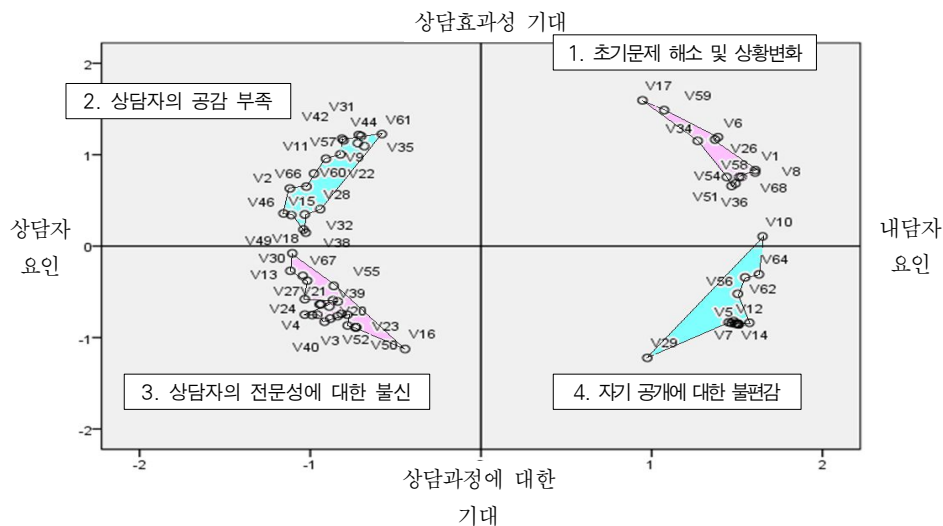


그림 2. 내담자가 지각한 조기종결 이유 개념도

표 4. 내담자가 지각한 초기종결 이유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초기 호소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12문장)		
문항	문장	중요도
1	아근 때문에 상담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일이 자주 생겨 상담자에게 미안하고 부담되었다.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차라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4.00
17	굉장히 절박하고 힘들 때는 상담자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늘 답은 내가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4.00
34	자꾸 내 고민을 떠올리게 되니, ‘내가 그런 심각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내가 심각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던 것 같다.	3.71
36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한 고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더 이상 주제거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 이야기도 다 했고 생각도 많이 했으니 이정도면...’ 그런 느낌이었다.	3.71
26	처음에 상담을 신청했을 때,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싶었다. ‘아..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 처음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3.43
51	시간이 갈수록 ‘굳이 내 이야기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살지 않겠나 싶었다.	3.29
59	상담자가 과거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문제도 발견하고, 그 한 시간 안에 ‘아 맞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었다.	3.29
58	상담을 받는 중에 갑자기 바빠져서 계속 미뤄지게 되니, 즐겁게 나와서 받으려고 했던 상담이 어느 순간 일이 되고 의무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3.14
8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담을 잘 못 가게 되었다.	2.86
68	주말에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잘 안 맞았다.	2.86
6	상담 전에 했던 고민이 크지 않아서인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한 것 같다.	2.71
54	상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안에서 답을 끄집어 내주려고 적절한 질문도 해서, 내가 금방 깨닫게 된 것 같다.	2.71
군집 2: 상담자의 공감부족(19문장)		
22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상담자를 기대했지만, 내가 만난 상담자는 지적이고 샤프한 이미지였다. 지지를 해주는 하는데,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3.71
44	상담자는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계속 응답해주는 것 같았다.	3.71
66	내가 힘든 얘기를 꺼냈더니 상담자가 ‘그건 별로 힘든 것도 아니다. 우리 언니는...’이라며 자기 언니 이야기를 해서 그만 해야겠다 생각했다.	3.57
28	나는 절박한데 상담자는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3.29
31	공감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3.29
9	내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자는 별 반응이 없었다. ‘아...이 사람이 열심히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았다.	3.14
42	난 신뢰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내 깊은 상처를 풀어내고 있었는데, 상담자 표정이 너무 멀쩡했다.	3.14
61	내가 거의 말을 다 하고 상담자는 거의 듣기만 하고, 내가 말을 할 게 없으면 질문을 하는 정도였	3.14

	다.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정숙한 분위기에 농담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15	내가 ‘상담을 계속 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상담자는 황당하게도 ‘하기 싫으시면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어가보려고 한 이야기인데 이걸 나보고 그만 가라는 것 아닌가.	3.00
38	상담자가 자기 공부, 사례 연구를 위해 상담을 하는 것 같아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3.00
49	상담자가 상담실을 예약할 때나 상담시간을 정할 때 나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	3.00
2	딱 한번 사정이 생겨서 당일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되게 딱딱한 말투로 ‘상담비는 그냥 나가는 거 알죠?’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기분이 너무 상했다.	2.86
32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보려고 심리검사를 한 것인데, 결과해석을 해주면서 ‘다 정상이긴 한데...’라며 내담자라면 꼭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으로 나를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	2.86
46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자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시간이 오버되었으니 오늘은 그만하자.’라고 해서 ‘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나싶었다.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나.’	2.86
11	내가 ‘상담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좀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회기에 상담자가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들춰내려고 했다.	2.57
18	내가 상담자에게 화를 냈더니 상담자가 침착하게 내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고,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거기서 확실해졌다. ‘이 사람이 그런 걸 들여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2.57
35	초심자와 이해는 하지만 상담자가 너무 몸을 사리면서 동물원 원숭이 관찰하듯 뒷짐지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우아하게 앉아서 자기 손에 피한방울 안 묻히려는 그런 느낌.	2.57
57	거부당하는 것에 상처가 많았는데 상담자한테 그런 기분을 똑같이 느꼈다. 피 흘리면서 왔는데 칼로 찌시는 느낌.	2.14
60	상담자에게 나 때문에 화났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표정은 씩었는데 말로만 아니라고 괜찮다고 계속 그랬다.	2.00
군집 3: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23문장)		
4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담자라면 상담은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난 상담자는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3.86
3	상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없이, ‘내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담을 오기 전에 이미 나는 굉장히 많이 생각한 사람이었다.	3.57
67	내가 ‘해결이 잘 안 되서 상담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상담자가 그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냐, 저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냐.’ 되지도 않는 해결책을 이야기했다.	3.57
16	상담수련생과 상담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3.57
21	초심 상담자와 내 상담내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상담 도중이라도 다른 상담자에게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3.43
52	상담자가 나보다 어리고 경험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3.43
50	상담자가 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처음부터 상담자가 나를 말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3.29

63	상담자는 자꾸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었다. 이렇게 열 번을 채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3.29
23	상담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상담을 펑크 낸 적이 있었는데, 나와 상담을 하기 싫은 역전이가 온 것 같았다. 그런데도 상담자가 스스로 그 역전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3.29
24	실질적인 경험 없이 석·박사만 나온 젊은 상담자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힘든 사람들을 너무 안일하게 우롱하는 것 같았다.	3.29
45	내가 속상한 게 잘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자는 표현할 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상담목표로 잡자고 했다. 그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상담자는 계속 그 얘기만 했다.	3.14
47	상담센터에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상담자로 투입을 하는 것 같아 센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아무리 싸게 하는 상담이라도 이 따위로 해도 되나.	3.14
48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 상담자와 이야기하면서 찾고 싶었는데, 상담자는 주제를 정해야 한다며 당장 문제를 말하라고 재촉했다. 내가 없다고 했더니 면접지에서 비슷한 거라도 체크하라고 했다.	3.14
33	상담자는 ‘10회기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본인 숙제를 위해 강압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느낌이었다.	3.00
20	상담자가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면서 상담을 해나가니 내가 같이 설명하고 같이 상담하는 느낌이 들어 썩 좋지 않았다.	2.86
30	잘 들어주던가, 아니면 명쾌하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면 꾀꾀하게 딱 버터 주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상담자를 믿을 수 없었다.	2.86
39	상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답을 해주지 않았다.	2.86
43	상담자가 ‘여기서 얻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서 ‘발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곳에 상담 하러 와서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상담자 본인 생각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에게서 듣고 전달해 주는 것 같았다.	2.86
65	심리검사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상담자가 시간조절을 못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2.86
27	내가 한 이야기를 상담자가 기억을 잘 못하고 탄소리를 했다. 상담내용을 녹음해가지만 다시 들어보지 않는 것 같았다.	2.71
40	상담자가 질문을 제대로 해서 상관없는 이야기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수다 떨다가 상담이 끝났다.	2.71
13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담자는 계속 내가 이전 회기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답답했다.	2.29
55	상담자가 성인 상담이 처음이라고 해서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공감보다는 질문 위주로 뭐가 문제인지만 찾으려고 해서 마지막에는 화가 났다.	2.29
군집 4: 자기공개에 대한 불편감(14문장)		
19	나 스스로가 상담에서 고민이나 힘든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4.29
64	처음에 간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뿌리, 정말 큰 문제를 보는 것이 힘들고 싫기도 하고 그랬다.	3.86
10	상담을 받으면 좋지만 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3.71
5	상담에서 말하기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나왔다. 상담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상담에 참고를 할 것 같아서였던 것 같다.	3.43

37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상담에서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3.14
41	어느 정도 상담이 도움이 되었지만 무언가 다시 생각하고 끄집어낸다는 것이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3.14
53	상담자가 아무리 나를 편하게 해주려 해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3.14
29	상담자의 너무 들으려는 행동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나는 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해야 하니, 생각 관리가 안 되고 생각 없이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3.00
62	상담 중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와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휴식이 필요했다.	3.00
7	내가 상담이 처음이라 뭘 더 얘기해야 하고 뭘 더 해야 하는지 몰랐다.	2.86
25	처음부터 상담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말하기가 싫었다.	2.71
14	상담을 다른 곳에서도 받아봤는데, 상담을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의 답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지겨웠다.	2.57
12	내가 친밀성이 부족한 건지 아무리 좋은 상담자라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만큼 내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2.43
56	취소를 하고 나서 상담센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한번 못 받으니까 계속 못 받게 되고 어쩌다보니 한 달이 지나서 연락하기가 좀 그랬다.	1.71

서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이해받고 나아지리라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담자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다고 느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자기공개에 대한 불편감’은 차원 1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군집들은 상담자가 특정 기법 혹은 개입전략 등을 활용할 것이고 내담자 자신이 상담에서 말하는 역할은 어떠한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된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의 구조화 등에 관련된 기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 축에 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군집 1(초기 호소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현실적으로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워 조기종결

을 결정한 경험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예후 기대를 갖는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대에 비해 상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중요한 생활 사건이 반복되면, 내담자들이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느꼈던 절실함과 적극성이 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군집 2(상담자의 공감부족)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냈지만 상담자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해 오히려 상처 받은 경험들을 담고 있다. 내담자들은 수련생의 수동적이고 의례적이며 방어적인 태도에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상담을 통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집 3(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내담자가 기대한 상담자의 상(象)을 수련생이 충

죽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느껴, 상담자를 믿고 의지하며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관한 군집이다. 특히, 내담자들은 수련생이 상담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연륜이나 인생경험, 내담자 역할 체험 등이 부족한 것은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 군집 4(자기공개에 대한 불편감)는 자신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 상담과정 그 자체가 불편하여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군집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조기종결을 경험한 초심 상담수련생과 내담자들이 조기종결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원인들의 개념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조기종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심 상담수련생과 내담자는 왜 조기종결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차별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심 상담수련생의 개념도 분석결과에 대해 다차원 척도 분석을 중심으로 보면, 초심 상담수련생의 조기종결 원인은 ‘상담자 요인과 내담자 요인’과 ‘독립성과 상호관계성’의 두 개 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렬징후가 보이는 상황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등 상담역량이 부족한 수련생의 개인 내적인 요인, 내담자의 저항적인 태도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적절하지 못한 조합 등에서 나타나는 내

담자의 개인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심 상담수련생의 조기종결 원인 4가지의 주요특징을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련생들은 자신의 상담경험과 역량이 부족하여 내담자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기종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각하였다. 이 요인은 수련생들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명확한 구조화를 통해 상담을 이끌기 어려워, 이로 인해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적절한 상담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등이 고조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초심 상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걱정, 어떤 반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걱정 등 만연한 불안을 보고하며, 실패한 상담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높다(Grater, 1985; Nutt-Williams, Judge, Hill, & Hoffman, 1997; Stoltenberg & Delworth, 1987)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초심자들은 자신의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초점을 두기, 자기 인식을 활용하기, 상담자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억제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Nutt-Williams et al., 1997). 상담에 갓 입문한 수련생은 초심자 보다 수행불안이 더욱 높은 시기임을 감안해, 자기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집단 슈퍼비전, 동료 상담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이러한 불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은실(2002)은 초보상담자들 중 반응 부담을 받는 집단이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내담자의 행동과 생각, 이면의 감정 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초심 상담자는 상담에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

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김진숙, 2001),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상담에서 반응 부담을 많이 느끼는 초심 상담수련생들은 조기종결의 원인을 실제 상담과정상에서 일어난 사건들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지각하고, 자기문제로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련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슈퍼바이저들은 이러한 수련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련생들이 조기종결 이후 과도한 자책으로 죄의식·우울감 등에 매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으로 종결과정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또 다른 조기종결의 원인은, 자기개방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피상적인 태도를 보인 내담자 개인의 내적요인이다. 이 군집의 핵심문장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저항이 내담자 자체의 성격 특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상담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내담자의 저항을 이해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고, 때문에 이 군집의 위치가 축 1의 독립성과 상호관계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저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내담자의 성격특질과 내담자의 저항,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유형 간의 관련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조성호, 1997; Mahalik, 1994; Schuller, Crist-Christoph, & Connolly, 1991). 최근 상담자의 숙련성과 내담자의 저항 간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는데, 초심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에 위협적이고 지시적인 태도가 증가하여 또 다시 내담자로부터 상담자와 관련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선자, 최해림, 2002). 상담실습에 갓 입문한 수련생의 경우 내담자의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지시적인 반응이 증가하거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저항의 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더욱 잦아 적절

한 개입을 시도하지 못한 채 종결에 이르게 될 수 있겠다.

상담수련생의 개념도 군집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기종결 원인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을 때, 놀라고 상처받기도 하며 내담자에게 실망하여 분노하거나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과 관련된다. 이는 초보상담가가 전문가보다 역전이 관리능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Hayes, Wagoner, Gelso, & Diener, 1991). 심홍섭(1998)은 상담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임상경험이 부족한 초심자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인지를 구별하게 되면서 점차 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가 가능하게 된다고 했는데, 초보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표현한 상담의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서, 더욱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들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한 초심 상담자들 중에서 상담성도가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내담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상담자들이 상담성도가 좋았다(김길문, 정남운, 2004). 이는 치료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을 수용하고 공감해줌으로써 내담자의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고 상담이 지속되며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문보경, 2001; Safran, 1990). 수련생들은 내담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종결의지를 표현할 때 스스로가 직면하는 감정과 대처과정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도록 노력하며, 슈퍼비전이나 상담 등을 통해 상담자 자신의 문제와 내담자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수련생은 수련기관에서 사례 배분 시 초심자가 맡기 어려운 내담자가 배정되었거나 상담자가 지향하는 상담기법과 내담자가 기대하는 상담자의 상이 전혀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조기종결의 원인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상담자 요인과 내담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관계성의 측면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내담자가 인식하는 조기종결의 원인에 관한 개념도 분석결과는 ‘상담자 요인과 내담자 요인’과 ‘상담효과성 기대와 상담과정 기대’의 두 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군집 1은 시간이 부족하고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초기 조기종결 연구에서는 조기종결을 상담의 실패로 간주하면서 조기종결의 이유를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의 부정적 심리특성에 주목하였다(Bakeland & Lundwall, 1975). 그러나 내담자들에게 직접 조기종결의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의 연구들에 의하면, 서비스나 상담자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환경적 압력과 상황적 장애 때문에’, ‘서비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좋아져서’ 등의 이유가 26%에서 최대 39%까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osta, 1980; Pekarik, 1983, 1985). 이처럼 군집 1은 조기종결이 단지 부정적인 상담성과 때문에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부족이나 경제력, 가족 돌보기 등의 다양한 환경적 압박과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담자 개념도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군집은 상담에서 수용받고 이해받을 것이라는 내담자의 기대가 실제 상담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기존의 상담성과 연구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변인, 그리고 관계변인 중 상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담자 요인이며(Asay & Lambert, 1999; Wampold, 2001), 그 중에서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상담성과와 정적인 관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유성경, 손난희, 2010; Greenberg, Constantino, & Bruce, 2006). 김현미와 권현용(2009)에 의하면 상담동기가 약하고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은 내담자들이 자신이 상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 상담자가 충고나 지시를 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조기종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각 군집에 속해있는 핵심문장으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가 기대수준과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상담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군집에서 나타난 요인은 상담과정에서 보인 상담자의 미흡한 개입전략, 불성실한 태도, 낮은 윤리의식 등이 내담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담자를 믿지 못하게 된 경험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이미 상담자가 수련중인 실습생임을 알고 상담에 임했지만, 수련생이 내담자 문제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상담 중 지나치게 주도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상담과정에서 소극적, 수동적, 적대적으로 반응하다, 결국 조기종결로 이어지게 된다는 초심 상담자와 내담자의 조

기종결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손유미, 정남운, 2005). 상담자 요인에 분포되어 있는 군집 2와 3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서로 가깝고 중앙에 몰리듯 위치해 있는 것 또한 상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기대가 상담자의 개인내적 요인들로 인해 좌절되면서 기대 수준이 낮아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내담자 스스로가 상담에서 편하게 자기를 개방하기를 불편해하고 상담자와 동맹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요인이 조기종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군집 4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문장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동적·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핵심문제에 대한 직면 거부, 불편에 대한 공포 등 내담자의 개인 내적 요인이 상담과정에서 기대되는 내담자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반영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담자들은 자신이 상담에서 기대한 바를 실제 상담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조기종결의 원인을 파악하는 인식구조를 보였다. 이는 수련생들이 안정적인 상담관계에 기여하는 상담자·내담자의 개인 내적 요인을 평가하여 조기종결의 원인을 이해하는 인식구조와 대비된다. 수련생의 개념도 결과와 같이 내담자 또한 수련생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나 수련생의 공감부족 등 상담자 요인들을 조기종결의 원인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이는 수련생이 종결 원인으로 지각한 자기 자신의 상담역량 부족과는 개념구조 상의 차이가 있다. 즉 내담자들은 상담 전 자신이 기대했던 상담자의 상과 수련생이 부합하는지, 상담자에게 이해·수용받고자 했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상담자 요인을 평가한 반면, 초심 상담수련생들은 내담자와 동맹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것이 상담역량이 부족하고 역전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귀인 하는 것으로 상담자 요인을 이해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조기종결 관련 예측변인들을 바탕으로 하여(Sharf, 2008; Wierzbicki & Pekarik, 1993), 지금까지 개념도 방법을 통해 도출된 수련생과 내담자의 조기종결 원인에 대한 인식차를 좀 더 가시적으로 탐색해보았다(그림 3 참조). 조기종결에 이르는 과정에 상담자와 내담자 각자의 특성, 작업동맹과 같은 상담과정 변인, 상담외적인 환경변인을 주요 관련변인으로 살펴보면, 상담에 갓 입문한 초심수련생들은 내담자보다 더욱 협소한 영역으로 조기종결의 상황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self and other awareness)이 부족하고 상담회기 중에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상담수행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Stoltenberg, 1981). Stoltenberg와 Delworth(1987) 또한 자기-타인에 대한 지각의 발달을 기준으로 상담자 발달단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담자는 지나치게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초심 상담수련생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정작 내담자가 상담에 갖는 기대나 동기는 지각하지 못하여 조기종결의 원인을 지각할 때에 수련생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한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수련생의 개념도에서도 대부분의 군집이 상담자 차원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처럼, 초심 상담자들은 조기종결에 이르는 상담과정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명확하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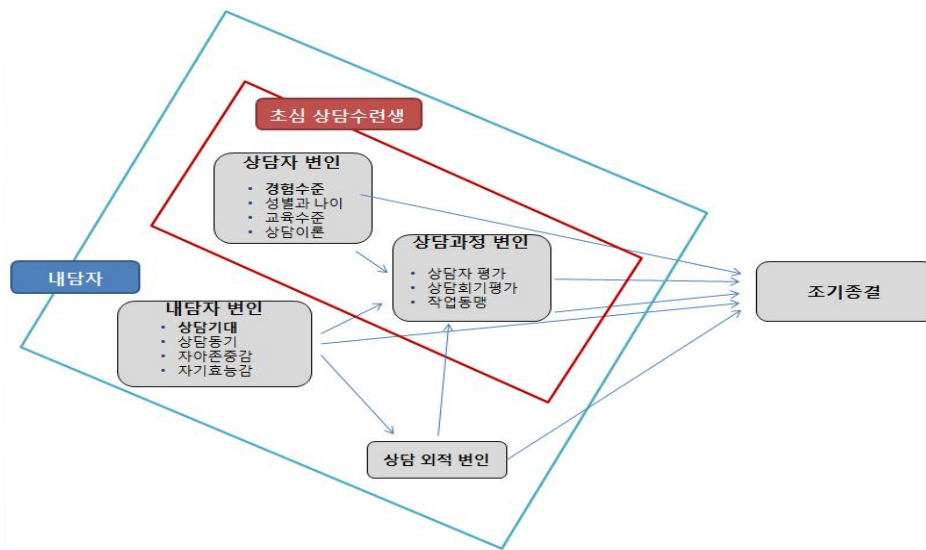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수련생과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에 대한 조망영역 차이

서 실시한 일대일 면접에서도 나타났는데, 수련생들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과 종결의사를 표현했다고 느끼며 조기종결의 이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는 손유미와 정남운(2005)의 질적 연구에서 초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기대들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는 지각차를 보인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내담자의 개념도를 바탕으로 조기종결의 예측 변인을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수련생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결의 원인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호소문제의 해결, 상황적인 장애 등도 상담을 조기종결하는 원인으로 언급하지만, 상담자들은 모든 조기종결을 상담의 실패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Pekarik, 1983, 1992). 많은 연구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기 꺼려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조기에 중단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호소한다(Derisley & Reynolds, 2000; Samstag, Batchelder, Muran, Safran, & Winston, 1998; Todd, Deane, & Bragdon,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공감부족과 상담자 전문성에 대한 불신 등을 다수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초심 상담수련생이 상담수련에 임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담자질과 상담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들이 수련생과 내담자의 진술에서 핵심 문장을 선정할 때 실제 연구 참가자들이 의도한 의미에서 벗어난 문장들이 한 군집 내에 묶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념도 연구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이지만(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핵심문장을 분류하기 전에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자들이 추출한 핵심 문장을 보여주고, 핵심문장들이 처음 진술할 때 의도한 바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개념도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자들이 추출한 핵심문장이 연구 참가자들의 진술문에서 의미 있게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제한점은 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조기종결을 경험한 후 경과된 시간의 차이가 크고 이를 회상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생각이나 경험이 일부 왜곡되거나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회기 평가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거나, 조기종결이 보고된 시점에 개입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 사설상담센터에서만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따라 해당 수련기관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겠다. 수련생들이 초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였음을 호소하거나 내담자가 수련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 등은 본 사설상담센터의 수련제도가 지닌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련기관에서 연구대상을 표집 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음을 밝힌다. 우선, 상담수련생과 내담자 간에 조기종결의 이유를 조망하는 영역에 있어 지각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감안한 수련생 교육 및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존의 상담 슈퍼비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초심 상담자의 경우 낮은 상담 성과

에 대해 자기 자신을 탓하며 상담개입방법과 같은 구체적 기술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 초심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문수정과 김계현(2000)에 의하면, 치료 목표 수립과 처치 계획, 핵심 내용 알아차리기, 개입 기술 등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특히 상담수련생을 대상으로 조기종결에 관한 경험을 다룰 때는 이들의 교육요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슈퍼비전 자체에 한계가 내포될 수 있다. 수련생의 요구 특성 자체에 이미 초심자의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가 내포되어 있고, 상담자-내담자 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영역의 차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수련생들이 지각한 어려움과 교육요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닌,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데 기인하는 수련생들의 특성과 상담자-내담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수련생과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가 조기종결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련생들은 내담자에게 직접 상담에 기대하는 바를 듣고 상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동의하는 것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습생을 교육할 때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고 내담자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구조화 절차를 강조하여 상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조기종결 후 수련생이 느끼는 과도한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움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련생들은 조기

중결 경험에 대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좌절 상황으로 지각하고 진로 결정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이때 지도감독자들은 슈퍼비전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자신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더 큰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과도하게 자기 귀인을 하며 체념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 수련생 중 슈퍼바이저로부터 ‘전문가가 맡아도 어려운 케이스였다.’, ‘내담자의 특성상 상담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라는 지도와 조언으로 위안과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쉽게 연구하기 어려웠던 사설상담센터 상담수련생과 내담자의 조기중결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간의 많은 상담 과정 연구들은 대학 내의 학생생활 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수련 중인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손유미, 정남운, 2005; 손진희, 유성경, 2004; 이해수, 이희경, 2011). 그러나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 상담센터는 총 54개가 운영 중인(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현황) 반면, 사설 상담센터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하여 약 400여개가 전국에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http://www.counpia.com>).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초기 호소문제 해소 및 상황변화’를 조기중결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지만,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손유미와 정남운(2005)의 연구에서는 초심 상담자가 회기와 목표의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하고 지나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조기중결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상황 변화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

롭고 상담센터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생들과는 달리, 사설상담기관의 내담자들은 금전·시간 대비상담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압박이 상담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히 사설상담기관에 종사하는 초심 상담수련생들에게는 상담시작 전에 내담자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정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고양시키는 준비작업의 필요성이 더욱 시사된다고 하겠다. 또한 상담자들은 조기중결의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적인 단회상담을 위한 적절한 상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창희(2008)는 효과적인 단회상담의 전략으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 내담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내담자와 함께 인정하는 것, 단회상담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속히 판단하는 것, 시간 관리와 사례 운영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이 되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대학상담센터 중심의 상담서비스가 점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상담센터로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 내담자들의 특성과 경험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다양한 상담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담과정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경인, 김창대 (2007). 한국 집단 상담 대가의 발달 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8(3), 979-

- 1010.
- 김길문, 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남희 (1994). 상담초기에 있어서 상담자의 경험 수준과 치료적 작업동맹 형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영 (1999). 상담자의 귀인편향과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지 (2005).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문항개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김진숙 (2001). 상담자 발달모형과 청소년 상담자 발달 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김현미, 권현용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6(2), 63-84.
- 대학학생상담센터현황 (2012). 전국대학교학생 생활상담센터 협의회, World Wide Web: www.ccus.kr에서 2012. 6. 자료 얻음.
- 문보경 (2001).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 경험: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김계현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문창희 (2008). 현실요법을 적용한 단회학생상담 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상담기관현황 (2012). 카운피아, World Wide Web: www.counpia.com에서 2012. 6. 자료 얻음.
- 손유미, 정남운 (2005). 초보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23-545.
- 손진희, 유성경 (2004). 내담자의 자기은폐 (self-concealment) 수준에 따른 상담회기, 작업동맹 평가 및 상담자-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27-345.
- 신은향 (1998).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결정적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안이환 (1999). 조기종결 내담자 및 상담자 변인 연구. *연구보*, 32, 51-73.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이환 (2002).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담자 변인과 내담자 변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이환, 심혜숙 (2002).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11-527.
- 유성경, 손난희 (2010). 내담자의 상담 기대와 실제 상담 성과와의 관계에서 치료동맹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22(4), 931-947.
- 이명아 (1996). 상담의 조기중단과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선자, 최해림 (2002).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 초보자와 숙련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17.
- 이혜수, 이희경 (201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 상담학연구, 12(5), 1433-1449.
- 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인턴 상담원의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33-859.
- 이후남 (2011, 10, 30). 미국선 '나'에 관심, 한국선 '남이 보는 나'에 관점. 중앙 Sunday, 15면.
- 정경빈, 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0(2), 45-60.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영은 (2011). 초심상담자 어려움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 (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은실 (2002). 초보 상담자의 반응 부담이 내담자 상태 알아차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7).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한국상담심리학회.
- Acosta, F. X. (1980). Self-described reason for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by Mexican-American, Black-American and Anglo-American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47, 435-443.
- Asay, T. P., & Lambert, M. J. (1999). The empirical case for the common factors in therapy: Quantitative findings. In M. A. Hubble, B. L. Duncan, & S. D. Miller (Eds.),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What works in therapy* (pp.33-5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Bachelor, A. (1991). Comparison and relationship to outcome of diverse dimension of the helping alliance as seen by client and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 534-539.
- Bakeland, F., & Lundwall, M. A. (1975). Dropping out of treatment: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738-783.
- Barrett, M. S., Chua, W. J., Crits-Christoph, P., Gibbons, M. B., & Thompson, D. (2008). Early withdrawal from mental health treatment: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practi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5, 247-267.
- Dearing, R. L., Barrick, C., Dermen, K. H., & Walitzer, K. S. (2005). Indicators of client engagement: Influences on alcohol treatment satisfaction and outcom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 71-78.
- Derisley, J., & Reynolds, S. (2000). The

- transtheoretical stages of change as a predictor of premature termination, attendance and alliance in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371-382.
- Elliott, R., & James, E. (1989). Varieties of clien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43-467.
- Epperson, D. L. (1981). Counselor gender and early premature terminations from counsel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49-356.
- Epperson, D. L., Bushway, D. J., & Warman, R. E. (1983). Client self termination after one counseling session: Effects of problem recognition, counselor gender, and counselor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07-315.
- Garfield, S. L. (1990). Issues and methods in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73-280.
- Grater, H. A. (1985). Stage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From therapy skills to skilled therapis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6, 605-610.
- Goodyear, R. K., Tracey, T. J. G.,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236-242.
- Greenberg, R. P., Constantino, M. J., & Bruce, N. (2006). Are patient expatiations still relevant for psychotherapy process and outcom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57-678.
- Hayes, J. A., Wagoner, S. L. V., Gelso, C. J., & Diener, R. A. (199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What the experts think. *Psychological Reports*, 69, 139-148.
- Heppner, P. P., Rosenberg, J. L., & Hedgespeth, J. (1992). Three methods in measuring the therapeutic process versus actual therapeutic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1.
- Hovar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Hunsley, J., Aubry, T. D., Verstervelt, C. M., & Vito, D. (1999). Comparing therapist and client perspectives on reasons for psychotherapy termina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6(4), 380- 388.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Longo, D. A., Lent, R. W., & Brown, S. D. (1992). Social cognitive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client motivation and attr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47-452.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438-450.
- Masi, M. V., Miller, R. B., & Olson, M. M.

- (2003). Differences in dropout rates among individual, couple and family therapy cli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1), 63-72.
- McNeill, B. W., May, R. J., & Lee, V. E. (1987). Perceptions of counselor source characteristics by premature and successful term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1), 86-89.
- Nutt-Williams, E.,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 of novice therapist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390-399.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Development*, 80, 86-93.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Pekarik, G. (1983). Improvement in clients who have given different reasons for dropping out of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909-913.
- Pekarik, G. (1985). Coping with dropou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6, 114-123.
- Pekarik, G. (1992). Relationship of clients' reasons for dropping out of treatment to outcom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91-98.
- Piper, W. E., Ogrodnick, J. S., Joyce, A. S., McCallum, M., Rosie, J. S., & O'Kelly, J. G. (1999). Prediction of dropping out in time-limited, interpretive individual and systemic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34-544.
- Rodolfa, E. R., Rapaport, R., & Lee, V. E. (1983).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87-90.
- Safran, J.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 87-105.
- Samstag, L. W., Batchelder, S. T., Muran, J. C., Safran, J. D., & Winston, A. (1998). Early identification of treatment failures in short-term psychotherapy: An assessment of therapeutic allia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 Research*, 7, 126-143.
- Schuller, R., Crist-Christoph, P. M., & Connolly, M. B. (1991). The resistance scale: Background and psychometric properties. *Panalytic Psychology*, 8, 195-211.
- Sharf, J. (2008). Psychotherapy dropout: A meta analytic review of premature termin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8(9-B), 6336.
- Sharf, J., Primavera, I. H., & Diener, M. J. (2010). Dropout and therapeutic alliance: A meta-analysis of adult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7(4), 637-645.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45-58.

- Stoltenberg, C.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9-6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k, M. J. (1992). Dropping out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A clinically oriented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1), 93-116.
- Todd, D. M., Deane, F. P., & Bragdon, R. A. (2003). Client and therapist reasons for termin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 133-147.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Tryon, G. S., & Kane, A. S. (1993). Relationship of working alliance to mutual and unilateral ter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3-36.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 and finding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Wierzbicki, M., & Pekarik, G. (1993). A meta-analysis of psychotherapy dropou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4(2), 190-195.
- 원 고 접 수 일 : 2012. 11.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1. 28
게 재 결 정 일 : 2013. 02. 27

A Concept Mapping Study on Premature Termination from both Training Counselor and Client's Perspective

Young-Joo Kim

Jae-Hyun Jang

Dae-Won Kim

Ji-W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s which were reported by training counselors and clients on premature termination. 7 training counselors and 9 clients were interviewed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by a concept mapping technique.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From counselor's perspective, two reasons for premature termination were: 'counselor-client factor' and 'independence-mutual relation'. Four clusters created were: 'lack of competence', 'resistance from client', 'mismatch in counselor-client', and 'client's defensive reaction'. Conversely, the clients' reasons were: 'counselor-client factor' and 'counseling expectations'. Four clusters created were: 'initial problem resolution and circumstantial changes', 'lack of sympathy from counselor', 'mistrust on professionalism of counselor', and 'discomfort from self-revealing'. The additional qualitative analysis showed differences between counseling expectations and post-counseling perception. This study provided a meaningful implication on beginner counselor training by apprehending the counselors' and clients' internal cognitive structure on premature termination.

Key words : training counselor, beginner counselor, premature termination, counseling expectations, concept mapping